
 문화체육관광부		<h1>보도자료</h1>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보도일시	8. 4.(수) 오전 10시 30분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쪽(붙임 없음)	
배포일시	2021. 8. 4.(수)	담당부서	체육협력관 장애인체육과		
담당과장	용필성(044-203-3181)	담당자	사무관 최은상(044-203-3184) 주무관 이성훈(044-203-3183)		


산악인 고(故) 김홍빈 대장 체육훈장 청룡장 추서

- 8. 4. 문체부 장관, 영주종합체육관에서 유족에게 훈장 전수 -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8월 4일(수) 오전 10시 30분, 고(故) 김홍빈 대장(향년 57세)의 분향소가 마련된 광주광역시 영주종합체육관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체육훈장 청룡장을 추서하고 유가족과 동료 산악인들을 위로했다. 고 김홍빈 대장은 지난 7월 18일(일) 히말라야 브로드피크(8,047m) 등반 성공 후 하산 중에 실종됐다.

고 김홍빈 대장은 1989년 동계 에베레스트(8,848m) 원정 등반을 시작으로 전문 산악에 입문했다. 1991년 북미 최고봉 매킨리(6,194m) 등반 중 조난 사고로 열 손가락을 모두 잃는 고난에 직면했지만, 국내외 산악 등반과 함께 장애인 알파인 스키 선수와 장애인 사이클 선수로 꾸준히 활동하면서 이를 극복했다. 특히, 200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히말라야 8,000m급 고봉 14좌 등정에 도전해 지난 7월 브로드피크(8,047m)를 정복함으로써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의 8,000m 이상의 14개 봉우리 모두를 등정하는 대기록을 달성하며 전 세계에 한국 산악인의 위상을 드높였다.

체육훈장은 체육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서, '청룡장'은 1등급 훈장에 해당한다. 이번 훈장은 2012년 '거상장(3등급)'에 이어 고 김홍빈 대장에게 수여하는 두 번째 훈장이다.

 <small>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small>	<p style="text-align: center;">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사무관 최은상(☎ 044-203-3184), 주무관 이성훈(☎ 044-203-3183)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p>
---	--